

한지작업을 통한 공예품 활용방안 연구

-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

신순단* · 박옥미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석사 ·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조상들의 문화유산의 하나인 한지는 우리 생활과 함께 살아왔으며 생활공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물자가 귀하던 그 옛날에는 못쓰게 된 종이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서적과 의사전달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생활소품의 재료로 일찍부터 한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질 좋은 닥나무의 재배지로서 우수한 한지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감각이 잘 나타나 있는 한지공예품은 서민들의 생활용품으로 각광 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화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양의 양지에 밀려 점점 퇴보하고 있다.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한지문화가 제대로 발전 계승되지 못하고 생활에서 소외 받아 온 것은 수공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이후 급격한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생활환경과 조건이 변화 되면서 한지공예품의 수요는 더욱더 저하되기 시작하여 한지공예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다시 우리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점점 부가되고 한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가고 있다. 대량생산에서 획일화된 것을 거부하고 개성과 독창성을 갖춘 한지공예품이 조형적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지의 질감과 소재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통해 한지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지의 재료로서의 특성과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지 만드는 과정과 한지의 재료와 종류를 고찰해보았으며 한지염색의 기법을 살펴보고 우리고유의 한지 변형기법인 중치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제작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독특한 질감의 소재로서 표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제작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교적 단시간에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개발에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잘 접목하여 새로운 공예가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종이의 재질보강이나 염색후의 처리방법, 보푸라기 방지법, 방수처리 등에도 학자들의 좀 더 심도있고 적극적인 개발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t1stnseks@hanmail.net